

전남

‘목포항 발전전략 베스트 10’ 추진

이용객 늘고 편리해졌다

편의시설 개선·항만 경제 활성화도

목포항만청이 올해 역점전략으로 ‘목포항 발전전략 베스트(BEST) 10’을 수립,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지방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올해 목포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가지 주요 전략을 마련했다. 이 중에는 ▲여객선 이용객 1천만명 유치 ▲수요자 중심의 여객선이용 편의시설 개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해상교통체계 구축 ▲맞춤형 계류시설 확보로 소형선박 이용자 편의도모 ▲항만경제 활성화 방안 구축 등이 들어있다.

또 ▲미래지향 해양에 대한 인식증진 강화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해양관광 거점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다기능 수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 배후부지 개발 ▲지역특성

과 환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등대 건설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여객선 1천만명 유치를 위해 여객서비스 및 해상교통여건 개선하고 주요항로 여객선 운임인하, 낙도보조항로 이용불편에 따른 항로변리,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국고건조여객선 확보 등을 추진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여객선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양관광홍보관 및 종합 예술갤러리를 개관했고 전 여객선에 대한 화장실 등 위생상태를 조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항만 및 인근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운항 위해요소 개선,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

리제제(ISM CODE)를 수립하고 이행했다.

특히 맞춤형 계류시설을 확보해 소형선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기아차 수출물량을 포함한 대량 화물의 안정적인 취급을 위해 2만6천 400여㎡(8천평)의 신항 배후야적장을 확보했다.

이밖에 지난 6월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목포항 해양쓰레기 2천567톤을 수거했으며 화인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목포 옛 등대를 선박(범선)형상으로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보강해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올해 ‘베스트 10’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진기자 sjslee@



‘겨울 진객(珍客)’ 힘찬 비상  
년 월동한다.

8월 겨울을 나기 위해 강진군 칠량면 강진만을 찾은 ‘겨울 진객(珍客)’ 큰고니(천연기념물 제 201호)떼가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고 있다. 강진만은 풍부한 먹잇감과 천혜의 서식조건 때문에 큰고니·큰기러기 등 철새들이 매년 월동한다. (강진군 제공)

전남 친환경농산물 ‘고급화’ 정착단계

무농약 제품 등 전국 생산량 57% 차지

전남지역의 유기농을 포함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국 의 56.9%를 차지하는 등 품질 고급화 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달 말 현재 전남지역의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3만5천791ha로 전국 7만6천280ha의 46.9%를 차지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무농약 이상 인증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전남은 61만9천으로 전국 생산량 108만7천의 56.9%에 달했다.

전남지역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은 지난해 말 2만6천135ha에 비해 10개

월 사이 9천656ha가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전년도 25만2천2천보다 무려 36만7천이 증가했다. 저농약을 포함한 도내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 중 무농약이상 점유비율도 지난해 25.8%에서 지난해 말에는 37%까지 확산됐다.

이는 내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전남도가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하는 농가에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품질고급화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농약이상으로 인증단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농약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검증된 친환경농법 등을 제공해 조속히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길필기자 cki@

주민 건강 앞장서는 화순군

남면·도곡 보건지소 등 신축사업 활발

화순군이 공공보건의료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에 걸맞은 보건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군은 꾸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건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2009년도 신축사업비 12억 7천600여만원을 투입해 남면, 도곡 보건지소 2개소와 세정, 다산 보건진료소(사진) 등 2개소 등 4곳을 준공했다. 또 화순군은 도곡 보건지소 등 3개소와 수만리



보건진료소 등 2개소 등 5곳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내년에는 이서 보건지소와 동면 무로리 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이 확정되며 이어, 군 보건소 방사선 촬영장비도 디지털 영상시스템으로 개선행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은 한방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기동기자 song@

완도에 150억자리 체육공원

가용리 준공 ... 인조잔디 구장 등 갖춰

완도군에 체육공원이 들어섰다. 완도군은 오는 14일 완도를 가용리에서 군민들의 체육진흥 발전 일환으로 추진했던 체육공원 준공식을 갖는다.

군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4만3천165㎡에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구장을 구비한 종합 운동장을 비롯해 테니스장(하드코트 6면·

클레이코트 6면), 정구 규격의 야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건립했다.

또한 건강 산책로와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고, 공원 주변에는 동백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해 친숙한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전북·버섯·유자 수출 확대 필요

광주·전남 업체 대상 현장간담회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배·파프리카·김치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실적 대비 20% 증가한 목표 53억달러 달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환율하락 등으로 지난 10월까지 수출은 36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윤장배(사진) aT 사장은 “국가전체 수출이 10월 말까지 2천947억달러



로 전년에 비해 19.5%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증가 추세지만 목표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aT는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해 수출물과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버섯류와 전복을 비롯해 양란·유자·배 등의 수출확대 대책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T는 지역·품목별로 담당자 지정해 수출확대에 1:1 전담 및 작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

“곤충산업, 앞으로 각광”

강기갑 민주당 대표 합평 곤충학회심포지엄 특강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6일 “앞으로 꽃가루매개 곤충 등 곤충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 현장인 합평 곤충엑스포공원에서 곤충학회 회원과 곤충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한국곤충학회 학술대회 및 곤충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곤충산업 육성 법률안 발의 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곤충은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농업에 천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한국도 250여 농가가 1천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이 기대되는 등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그는 “농가로부터 법 제정을 요청 받고 난관 끝에 3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곤충자원 개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골 기반 심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평에는 곤충학원의 개발 및 이용 현황과 전망, 기술지원 방향, 목표, 곤충기술 상담센터 설립 규정, 과태료 규정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강 대표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쌀값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남도 의원 4명을 찾아 위로하고 이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쌀값 대책을 촉구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이사 0621367-3005 H.P 011-642-264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전남	목포	105/22	58	5800	3층건물
	목포	109/33	8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목포	112/34	91	5200	3층건물
전북	전주	105/22	58	5800	3층건물
	전주	109/33	8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전주	112/34	91	5200	3층건물

• 서구청영 광주세무사단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임대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의 대출일선)-명도(이사)